與 전남 단체장 6~7곳 '무공천' 할 듯

정당지지도 민주당에 밀려 후보 없어

화순·함평·나주 등 무소속 강세도 원인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역 시장·군수 가운데 6~7곳은 후보자를 내지 않고 '무공천 지역'으로 남겨둘 전망이다. 여당이 전남지역 기초단체장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의 제일 원인은 무엇보다 정당지지도에서 민주당에 크게 밀리고 있기 때문. 또 무소속 현직 단체장들이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맞설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은 무소속 후보가 정서적으로 열린우리당 성향을 보이고 있어 전략적 무공천을 선택한 경우도 있다. .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은 11일 현재까지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 가운데 15곳에 후보를 공천했다. 하지만 나머지 7개 시·군은 '무공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화순과 함평, 나주, 보성 등 무소속 단체장들의 지지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서겠다는 인사가 없는 상태다. 또 일부 당원들은 차라리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것이 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결과적으로 전체적 선거 국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무소속인 이영남 화순 군수 후보측은 "이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라 열린우리당원들이 돕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은 후보를 내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영광군의 경우 열린우리당 소속 현역 도의원이 지역 정서와 지지도를 감안,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상태다.

열린우리당은 현직 군수가 민주당 소속인 해남과 강진 역시 후보들을 물색해 왔으나 아직까지 경쟁력 있는 인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강진의 경우 민주당 소속인 황주홍 현 군수가 탈당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변수가 남아있는 상태다.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후보등록(16~17일) 직전까지 후보를 계속 물색하겠지만 최소 5~6곳은 무공천 지역이 되기 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함평군수 지지 회견 민주당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와 이낙연 의원이 11일 오전 함평군 민주당사에서 안병호 함평군수를 지지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 영 광주시장 후보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

한영〈사진〉 한나라당 광주시장 후보가 1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출마 기자회견을 갖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한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제부턴가 광주는 특정 정당의 볼모가 됐다"면서 "광주도 이제는 변해야 하는 만큼 광주를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대를 졸업한 한 후보는 광주여성재단 네트워크 대표와 대한어머니회 광주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 사무처 직원 국립 5·18묘지 참배

허태열 사무총장 등 한나라당 사무처 직원들이 12일 광주 망월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집단 참배하고 묘지 주변 정화작업에 나선다. 김태환 사무부총장은 11일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 참석, "김영선 최고위원과 허 사무총장 등 사무처 직원 40여명이 내일 하루 버스를 전세내 광주로 내려가 참배도 하고 묘지 정화작업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사무처 직원들이 망월동 국립묘지를 단체 참배하고 묘지 주변 정화작업을 벌이는 것은 작년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광태 후보 'DJ 자료' 기증 논란

선관위 사실확인에 '관권선거' 반발

민주당 박광태 광주시장 후보가 소장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자료를 김대중컨벤션센터 내 김대중 홀에 기증하기로 한데 대해 선관위가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자 "신종 관권선거"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박 후보 선거대책본부 조영석 대변인은 11일 성명을 내고 "선관위가 김 전 대통령 자료를 기증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문제삼아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자료를 요구했다"며 "선거법을 빙자해 신종 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홀'을 활성화해 많은 사람들에게 김 전 대통령을 알리기 위해 아무런 정치적 목적없이 한 자료기증 의사까지 선거법을 적용하려는 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선관위가 유신시대보다 더한 야당 탄압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선관위는 호별 방문한 열린우리당 조영택 예비후보의 중차대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 구두경고에 그치는 등 편파단속을 하고 있다"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10일 박 후보가 김 전 대통령의 소장품을 기증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사실 확인 차원에서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위를 확인했다"며 "법위반 혐의로 조사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지난 9일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책자와 글씨 등 김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자료 수백점을 최근 완공된 김대중컨벤션센터내 '김대중 홀'에 전시할 수 있도록 기증하겠다고 밝혔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31 지방선거 현장

'전남 서부권 발전 전략' 회견

○…서범석 열린우리당 전남지사 후보는 김근태 최고위원과 함께 11일 오후 같은 당 김정민 목포시장 후보 개소식에 참석한 뒤'전남 서남부권 발전을 위한 공동전략'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 후보는 이날 "도지사가 되면 목포시장을 도와 목포를 전국 6대 도시로, 전남은 인구 300만시대로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J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 전남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데 현재 간척지 양여, 환경보존, 막대한 비용 조달 등 문제에 봉착해 있다"며 "힘 있는 여당 도지사가 되어야 이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박준영 후보 목포 '희망본부' 개소

○…박준영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1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목포 하당 '희망본부'에서 개소식을 열어 "지난 2년간의 도정 경험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비전을 세워 전남의 운명을 바꾸겠다"고 선언한 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승리를 다짐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민주당 주요 인사와 지역 국회의원, 지방선거 후보자 등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수지역 노조대표자 면담

○…박웅두 민주노동당 전남지사 후보는 11일 여수 지역 노동조합 대표자와 조합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도지사 후보 후원회 '10만원 세액공제'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12일에는 같은 당 현애자 국회의원과 함께 구례군의원 이창호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다.

김화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김화진 열린우리당 남구청장 후보는 11일 오후 5시에 백운동 로타리 창신빌딩 3층에서 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지병문 국회의원, 고재유 전 광주시장을 비롯해 1천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김 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5·31 지방선거는 힘있는 여당후보인 기호 1번을 찍어 남구 발전을 앞당겨 일류 남구로 발돋움 할 것인가, 아니면 폭력과 돈 공천 등 구태정치를 일삼는 구태정치의 대명사인 3번 후보를 찍어 3류 남구로 전락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의미 있는 선거"라고 말했다.

이형석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이형석 열린우리당 광주 북구청장 후보는 11일 시의원 및 기초의원 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북구 용봉동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이 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광주 북구의 4년은 단순한 자치단체 운영을 넘어 광주의 10년 역사를 좌우할 것"이라며 "5·31 지방선거 승리로 2007년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다지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이광주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을 선대본부장으로 위촉했다.

전주언 후보 지지 공식 선언

○…이길도 전 광주 서구의회 의장이 민주당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하고, 전 후보측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을 예정이다. 이 전 의장은 서구청장 출마를 표명하며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전 후보가 전략공천되면서 그동안 반발해 왔다.

이 전 의장은 1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31지방선거에서 정치인생의 마지막 기회로 서구청장에 출마해 참일꾼으로 봉사하려 했다"면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지 못했으나 지조와 철학을 지닌 정치인으로서 뜻을 접고 전주언 후보를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풍부한 행정경험과 성실성, 부지런함을 두루 갖춘 전주언 후보야 말로 서구 발전을 위한 최고의 적임자라고 확신한다"면서 "전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반드시 당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은 후보 오늘 재산 공개

○…열린우리당 이 은 순천시장 후보는 12일 오전 11시 본인과 배우자, 부모 및 자녀의 재산규모는 물론 그 형성 과정까지 상세히 유권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 당의 순천시장 후보자들에게'재산형성과정 공개'에 동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김한길 의원 등 여야의원 185명의 발의한 '공직자 재산형성과정 소명 의무화'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번 공개는 법제화 이전에 공직자나 공직후보자 중 최초로 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직자의 모든 행위는 공공복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능력과 전문성은 물론 도덕성도 반드시 사전에 검증받아야 한다"며 "민선 시장 3명이 모두 사법처리된 불명예를 벗고 당당한 순천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